



가락국(駕洛國)과 고대 남인도(南印度)의 문화적 접촉에 관한 고찰 - 물고기숭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ltural Contacts between Garak Kingdom and Ancient South India : With Special Reference to 'Fish Worship'

저자 (Authors)	이거룡 Lee, Geo-Lyong
출처 (Source)	인도연구 22(1) , 2017.5, 85-121 (37 pages) Journal of Indian Studies 22(1) , 2017.5, 85-121 (3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인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ia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80526
APA Style	이거룡 (2017). 가락국(駕洛國)과 고대 남인도(南印度)의 문화적 접촉에 관한 고찰. 인도연구, 22(1), 85-12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9 10: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가락국(駕洛國)과 고대 남인도(南印度)의
문화적 접촉에 관한 고찰:
물고기송배를 중심으로 *

이 거 롱 **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87
- II. 신화와 역사의 간극 / 90
- III. 수로왕릉 쌍어문(雙魚紋)에 관한 불편한 진실 / 93
- IV. “가락국기”의 아유타국(阿踰陀國)은 어디인가? / 98
- V. 고대 따밀(Tamil)왕국과가락국에서 물고기송배 / 101
1. 고대 따밀왕국의 물고기송배 / 102
2. 낙동강 이남, 고대가락국지역의
물고기송배와 드라비다(Dravidia)문화 / 106
- VI. 나가는 말 / 111

* 이 논문은 동명대학교 인도문화교류연구소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주관하여 2016년 11월 4일 “한국-인도 문화교류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선문대학교 대학원 자연치유학과 부교수. leeashram@hanmail.net

주제어: 가락국, 가야, 따밀왕국, 허황옥, 수로왕, 아요디아, 물고기숭배, 쌍어문, 빠디아왕국, 미낙쉬, 『삼국유사』, “가락국기”, 김해

◆ 국문요약 ◆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인 접촉가능성은 주로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허황옥(許黃玉)전승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고대 인도와 우리나라의 연결고리는 허황옥의 출자(出自)로 기록된 아유타국과 수로왕릉(首露王陵)의 쌍어문이었다. 허황옥전승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을 역사상 실존했던 나라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와 연관시켜서 허황옥의 출자를 현재 북인도의 아요디아(Ayodhya)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허황옥전승을 단지 후대의 부회(府會)나 윤색된 표현으로 이해하며, 아유타국은 인도에서 『라마야나(Rāmāyaṇa)』 이후에 생겨난 신화적인 허구로 보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고기숭배’를 중심으로 고대 따밀왕국들과 옛 가락국의 문화적 접촉가능성을 고찰했다. 종교야말로 고대 인도와 옛 가락국의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문화종합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 접촉을 시사하는 가장 확실한 예는 따밀어(드라비다어)와 한글의 유사성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언어정보로 간주되는 지명(地名)에 주목하여, 물고기숭배를 중심으로 고대 따밀왕국들과 옛 가락국의 문화적 접촉을 규명하고자 했다. 옛 가락국권역 또는 낙동강 이남지역에는 물고기 ‘어(魚)’ 자가 들어간 산 이름이나 땅 이름 또는 절 이름이 많다.

이것은 고대 우리나라의 산악신앙과 물고기숭배가 결합된 것이며, 이 중에서 물고기숭배는 고대 따밀왕국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옛 가락국의 물고기숭배가 따밀왕국들과 연관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사찰의 창건설화에 반영된 전승에서 엿볼 수 있다.

물고기숭배는 고대 따밀왕국들에 현저한 문화현상이었다. 지금도 남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숭배의 대상은 미낙쉬(Minakshi)여신이며, ‘미낙쉬’라는 이름 자체에 물고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고대 인도의 여러 왕국 중에서 쌍어문을 기장(旗章)으로 사용한 왕국은 따밀왕국들 중 하나인 판디아(Pandya)왕국이었으며, 미낙쉬는 판디아왕국의 공주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옛 가락국권역은 남해와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밀양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내륙의 수운(水運)과 도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남인도의 동해안을 끼고 있는 드라비다문화권의 따밀왕국들은 해양을 통하여 인도 바깥의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문화적인 접촉을 했다. 말하자면, 고대 따밀왕국들은 인도의 문화가 해외, 특히 아시아로 전래되는 교두보였다.

I.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인 접촉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대개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전해지는 허황옥전승을 중심으로 인도의 아유타국과 가락국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넓게 보면 한국불교남래설(韓國佛教南來說)도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언어학적인 연구로서, 주로 우리말과 따밀어의 유사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허황옥과 아요디아 왕족 간의 유전학

적인 관련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¹⁾, 또한 비교민속학적인 입장에서 허황옥전승의 의미를 다룬 연구들이 있지만²⁾, 아직 주목받는 학설로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다.

허황옥전승에 관한 연구는 다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가락국기”의 허황옥전승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또는 단지 신화적인 허구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제II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는 허황옥전승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허황옥의 출자로 전해지는 아유타국의 소재가 어디인지를 찾는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아유타국이 북인도 갠지스강의 지류인 사라유(Sarayu)강 유역의 아요디아라는 견해가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아유타국이 남인도에 있었다는 견해(김정남 2005)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제III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인 접촉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대 따밀왕국들의 드라비다문화가가락국의 문화에 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필자는 고대 남인도의 따밀왕국들과 낙동강 이남의 옛가락국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허황옥전승 및 옛가락국과 고대 인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북인도의 아요디아 및 쌍어문(雙魚紋)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가락국기”의 “아유타”라는 나라 이름이 현존하는 ‘아요디아’라는

1) 말(Mall)은 아요디아의 라마(Rāma)와 한국 간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왕과 결혼한 인도 공주(허황옥) 신화는 사실이다.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두 기의 왕릉 유적에서 나온 DNA 샘플들에 대한 연구는 한민족과 아요디아 사람들 사이의 유전적인 관련을 보여준다. 그들의 초기 연구는 인간의 유골에 있는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의 DNA에 초점이 맞추어졌다”(Mall n. d.).

2) 예를 들어, 안재용 2008; 이창식 2012; 임재해 2010 등이 있다.

지명의 음역이며, 수로왕릉의 쌍어문과 아요디아지역에서 발견되는 쌍어문이 상호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는 문헌이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거하여 입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유타국과 쌍어문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연구들과 관점을 달리 해서, 북인도의 아요디아가 아닌 남인도지역과 가락국 간에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양을 통한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인 접촉가능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었다(간수(정수일) 1989, 1-28; 한지연 2016, 129-149; 황순일 2017, 29-43). 이런 점에서 남인도의 따밀지역과 가락국의 문화적인 관련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볼 때, 고대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접촉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예는 따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이다. 이 문제는 이미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규명되었다.³⁾

본 논문에서는 특히 따밀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물고기숭배 전통과 고대 가락국지역 또는 낙동강 이남지역의 산(山) 이름과 사찰 이름 등에 물고기 ‘어(魚)’ 자가 많은

3) 한국어와 따밀어의 관계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미국인 험버트 박사(Homer Bezaleel Hulbert)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드라비다어족에 속하는 4개의 언어와 한국어를 비교 연구하였으며, 1905년에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Languages of India*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의 부록에는 80여 개의 어휘비교표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와 따밀어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의 선구자는 고(故) 강길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향가신해독 연구』(1995)를 통해 향가의 해석에서 드라비다어 어휘의 원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향가를 해석할 때 드라비다어 어휘를 원용해야 온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2011)에서 한국어와 따밀어 사이의 상응 가능성이 있는 1,700여 개의 어휘들을 소개하였다. 캐나다 소재 한국-따밀연구회의 김정남 회장은 2010년 6월 인도 따밀나두주의 코임바토르에서 열린 고대 따밀학 학술대회에서, 한국어와 따밀어 어휘 중에서 발음과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500여 개를 소개하였다(『김해신문』 2015/11/25).

점에 주목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수로왕릉의 쌍어문도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이 지역에 전래되는 물고기승배의 한 측면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사실 고대 인도의 여러 왕국들 중에서 쌍어문을 기장으로 사용한 나라는 북인도의 아요디야가 아니라 따밀왕국들 중의 하나였던 뻬디야(Pandya) 왕국이다. 이 문제는 제IV장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II. 신화와 역사의 간극

고대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접촉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가락국기”의 허황옥 기사이다. 허황옥이 인도로부터가락국에 도착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許)라 하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입니다.”⁴⁾ 여기서 아유타국은 고대 인도 또는 인도의 어떤 왕국이나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허황옥이 인도에서 왔다는 “가락국기”의 기사에 대한 국내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이 기사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단지 신화적인 허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고고학자인 김병모의 연구를 필두로 다수의 불교학자들도 동조하는 입장이다. 후자는 역사학자 이광수의 견해로 대표된다. 인도고대사를 전공한 이광수는 “가락국기”의 허황옥 기사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삼국유사』 “가락국기”조. “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일연 2002, 258).

김병모는 『삼국유사』의 허황옥 기사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허황옥의 출자를 현재 북인도의 아요디아로 단정한다. 즉 삼국유사의 아유타국이 현재의 아요디아이며, 허황옥은 바로 이 아요디아의 공주였다는 것이다(김병모 1988, 8). 김병모의 주장은 주로 수로왕릉 정문과 안향각(安香閣)에 남아있는 쌍어문이 인도의 아요디아지역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쌍어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김병모의 관심을 전후로 해서 허황옥전승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불교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허황옥이 아유타국의 공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삼국유사』의 과사석탑(婆娑石塔)에 관한 기사 등이 불교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허황옥전승은 한국불교의 남래(南來)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광수는 김병모의 주장이 “고대 인도의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부합하지 않는다.”(이광수 1993, 274-275)고 지적한다. 필자가 보기에 김병모의 연구는 입증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고착화된 문화적 전파론에 치중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김병모는 수로왕릉의 쌍어문이 아요디아의 쌍어문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지만(김병모 2011, 34-35), 서기 48년에는 아요디아(아유타국) 또는 사계따(Saketa)⁵⁾에 쌍어문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고고학적 근거는

5) 아요디아와 사계따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개는 이 둘을 서로 대체 가능한 동일한 지명으로 본다(Cunningham 1871, 405-406). 박커에 따르면, “사계따는 대개 바라문교 문헌의 아요디아에 대하여 불교 자료들에서 주어진 이름”(Bakker 1982, 103)이며, 이미 기원전 6세기에 인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 또한 최근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초기 불전 시대에 이미 아유타(아요디아)와 사계따가 공존했다(황정일 2016, 152).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라마야나(Rāmāyaṇa)』의 최종 편찬이 이루어진 5-6세기 무렵에 사계따가 아요디아로 치환되었다는 견

없다. 또한 현재 수로왕릉의 쌍어문과 가락국 간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쌍어문이 있는 남릉정문(納陵正門)이나 안향각은 조선시대 건축물인데(김태식 1999, 77), 여기에 쌍어문이 새겨지게 된 연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김병모는 단지 수로왕릉의 쌍어문과 현재 아요디아지역의 쌍어문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황옥전승을 역사적인 사실로 주장한다(김병모 1988, 8; 2011, 34-35). 김병모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적어도 쌍어문이 고대 인도의 사라유 강가에 있었던 아요디아의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 수로왕릉의 쌍어문이 고대 가락국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김병모의 연구가 지나치게 고고학적 전파론에 집착한 나머지 역사적인 사실을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면, 역으로 이광수의 연구는 ‘문헌으로 입증되는’ 역사적 사실에만 의거한 문제점이 있다. 어찌 보면 역사학자가 역사를 서술하면서 문헌이나 고고학적 발굴로 입증되는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과학자에게도 때로는 영똥한 상상력이 새로운 발명의 단초가 되는 것처럼, 역사 또한 신화와의 소통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비과학적인 상상력이 첨단 과학의 단초가 되는 것처럼, 신화로만 알려져 있던 이야기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는 예도 얼마든지 있었다(이봉일 2014, 172). 예를 들어, 2009년 문무대왕릉비의 발견은 가야의 김수로왕에 대한 기록이 신화와 역사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사례가 되었다. 이로 볼 때, 『삼국유사』의 허황옥 기사를 단지 부회나 운

해(이광수 2003, 187)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색된 신화로 마침표를 찍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신화와 역사는 서로를 비추는 내면의 거울로써, 안팎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엮여 있는 피비우스의 띠와 같다”(이봉일 2014, 172).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학문적 태도를 지양하고, 신화의 베일이 벗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허황옥전승은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III. 수로왕릉 쌍어문(雙魚紋)에 관한 불편한 진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락국기”의 허황옥전승을 역사적인 사실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쌍어문이 있다. 즉 수로왕릉 정문과 안향각에 남아있는 쌍어문은 아요디아지역의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보는 쌍어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허황옥이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가락국기”의 기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세기 때 한반도에 있던 다른 고대국가에는 국가의 상징이 없다. 유독 가락국의 쌍어문만 이 국기가 없는 시대에 국가 상징이었다”(김병모 2011, 34).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쌍어문이 가락국의 상징이었다는 김병모의 주장이다. 김병모는 무슨 근거로 쌍어문이 가락국의 상징이었다고 단언하는가? 이에 대하여 김병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쌍어문이 수로왕릉뿐만 아니라 가락국의 영역이었던 김해 은하

사, 경상남도 일대의 계원암, 영암사지 등에 남아 있고 현대에도 김해지방의 민가에서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경배되기 때문이다”(김병모 2011, 34).

필자가 보기에 단지 쌓어문이 고대 가락국의 영역이었던 지역에서 민속신앙의 대상이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쌓어문이 가락국의 상징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김병모의 주장은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쌓어문이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조선시대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모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재 아요디야의 쌓어문과 수로왕릉의 쌓어문이 동일한가를 따지기 전에, 우선 현재 수로왕릉 정문과 안향각에 남아있는 쌓어문이 과연 처음부터 있었던 원형인가 하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를 입증할 만한 사료나 고고학적인 근거는 없다.

만일 쌓어문이 가락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다면 후대의 기록에 전해질 법도 한데, 수로왕릉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는 쌓어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수로왕릉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대궐 동북쪽 평지에 높이가 한 발이고 둘레가 300보인 수로왕릉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며,⁶⁾ 수로왕릉의 부속 시설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후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에도 가락왕릉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지만, 여기에도 부속 시설물이나 쌓어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신(臣)이 순행하여 김해에 이르러 읍성 서쪽 길옆을 살펴보았더니, 가락 시조 수로왕의 능침이 논에 잠겨 있어서, 혹은 길을 열어 밟고 다니고, 혹은 소나 말을 놓아기르기도 하고 있었습니

6) 『삼국유사』 “가락국기”. “遂於闕之良方平地，造立殯宮，高一丈，周三百步而葬地，號首露王廟也”(일연 2002, 259).

다.7)

한편 『정조실록』에는 가락왕릉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있다.

가락왕릉은 김해부(金海府) 성 서쪽 2리쯤 되는 평야에 있는데, [...] 설치한 물건은 혼유석(魂遊石) 1좌(坐), 향로석 1좌, 진생석(陳牲石) 1좌이고, 능 앞의 짙막한 비석에는 '수로왕릉'이란 4글자를 써서 거북머리의 받침돌에 세워 놓았으니, 이는 바로 경자년에 특별전교로 인하여 고쳐 세운 것입니다. [또한] 돌담으로 둘러쌓았는데 앞은 제각(際閣)까지 닿았습니다.⁸⁾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정조실록』에는 수로왕릉에 놓인 석물과 비석 및 비문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가락왕릉을 보고하고 있지만, 쌓어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정조 때까지만 해도 가락왕릉이나 허왕후를 모신 사당에 쌓어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쌓어문이 있었다면, 더욱이 김병모의 주장대로 가락국의 국가 상징이었다면, 가락왕릉에 대한 보고에서 쌓어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김태식에 의하면, “정조16년(1792년)까지는 납릉정문과 현재 상태의 제각건물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99, 74). 『숭선전지(崇善展誌)』(1903)에 따르면, 안향각은 순조24년(1824)에 신축된 것이며, 납릉정문은 정조17년(1793)에 외삼문(外三

7) 『세종실록』 세종20년 10월 기묘조. “臣巡至金海, 親審邑城西面道傍駕洛始祖首露王陵寢, 湮沒水田 或開道踐履 或牛馬放牧”(이병도 1964, 215에서 재인용).

8) 『정조실록』 정조16년 4월 을사조. “駕洛王陵 在金海府城西二里許 平野中. … 象設則魂遊石一座香爐石一座 陳牲石一座. 陵前短碑 書首露王陵四字. 承以龜頭籠臺 卽庚子年因特教改豎者. 繚以石牆 前抵于祭閣”(김태식 1999, 70-71에서 재인용).

門)으로 설치되었다가 현종8년(1843)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디지털 삼국유사 사전』 “전 수로왕릉”).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 수로왕릉의 쌍어문은 정조16년 이후 또는 순조24년 이후에 그려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쌍어문이 가락국의 상징이 아니었으며, 가락왕릉에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조16년 이후에 그려졌다면, 과연 어떤 연유로 쌍어문이 수로왕릉 정문과 안향각에 그려지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모는 수로왕릉과 안향각이 수리되는 과정에서 그 원형은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으로 본다(김병모 1988, 6-7; 2011, 34). 다시 말하여, 설사 현재의 쌍어문이 원형 그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쌍어문의 원형은 처음부터 있었으며, 수리 과정에서도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수로왕릉의 쌍어문을 조선 후기 건축기술에 능한 승려들에 의해 새겨진 것으로 보거나,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불교건축문화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창식 2012, 18)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수로왕릉의 쌍어문과 가락국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아요디아지역에서 볼 수 있는 쌍어문과 고대 아요디아왕국의 관계 또한 입증되지 않는다. 고대 아요디아왕국에서 쌍어문을 나라의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이 아요디아라는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현재 인도에 전해지는 아요디아왕국의 전통이 재조명되었다. 지금도 인도의 아요디아에는 ‘왕(Raja saheb)’이라 불리는 미슈라(Bimlendra Mohan Prasad Mishra)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의 집에는 쌍어문 기장이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나라에서 그는 가야왕족의 후손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미슈라 본인은 허황옥전승을 믿기 어려워했다. 왜냐하면 미슈라의 조상은 겨우 10대까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미슈라의 조상은 아요디아 출신도 아니다. 미슈라는 자신이 비하르(Bihar)지역 보즈뿌르(Bhojpur)의 영주(領主)였던 사다난드 빠타᳚(Sadanand Pathak)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다. 사다난드 빠타᳚의 아들 고팔 람(Gopal Ram)은 17세기 후반에 아요디아로 이주했다.⁹⁾ 다시 말하여 미슈라의 조상들이 아요디아의 왕족으로 자리 잡은 것은 17세기 후반의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인 접촉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심에 쌓어문을 두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수로왕릉의 쌓어문과 고대 가락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아요디아의 쌓어문과 고대 아요디아 또는 사계따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수로왕릉의 쌓어문과 아요디아의 쌓어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고대 가락국과 아요디아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아요디아 남자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과 김해지역 남자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의 유사성을 근거로 고대 가락국과 아요디아의 관련을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 인도와 가락국의 문화적인 접촉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쌓어문이 의미를 지니려면 우선 수로왕릉의 쌓어문이 가락국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요디아의 쌓어문이 고대 아요디아(사계따)의 쌓어문이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어야 한다.

9) 미슈라에 대한 내용은 인도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참조하였다 (*Hindusthan Times* 2007/05/04).

IV. “가락국기”의 아유타국(阿踰陀國)은 어디인가?

허황옥전승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아유타국”은 쌓어문만큼이나 중요한 키워드였다. 아유타국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실재한 왕국 또는 도시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가상의 왕국 또는 도시라는 것이다. 전자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현재 북인도의 아요디야가 아유타국이라는 설이며, 다른 하나는 아유타국이 남인도의 어떤 지명을 가리킨다는 입장이다. 후자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견해이며, 한국불교남래설과 맞물려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태국의 아유타야(Ayutthaya)와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을 연관 짓는 견해가 있지만, “가락국기”의 형성시기보다 후대인 14세기 이후에 아유타야가 건설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이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불행하게도 『삼국유사』에는 아유타국에 대한 설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이외의 기록에는 아예 허황옥에 관한 기사가 전해지지 않는다. 한역 불전에서 아요디야가 아유타로 음역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은 갠지스 강 지류인 사라유 강가에 자리 잡은 아요디야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의 쌓어문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 주장을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수로왕릉이나 아요디야의 쌓어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아유타국의 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에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은 곧 북인도의 아요디아라는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

최근에는 “가락국기”의 아유타가 남인도 첸나이(Chennai) 동쪽 바닷가의 마을인 아요디아 꾸뵘(Ayodhya Kuppam)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정남 2005). 첸나이는 따밀나두(Tamil Nadu)주의 주도(州都)로서 드라비다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아유타가 남인도의 아요디아 꾸뵘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아유타가 북인도의 아요디아라면 당시의 항해술로 볼 때, 허황옥이 가락국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북인도의 아요디아는 해안이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황옥은 인도 남동부 바닷가의 아요디아 꾸뵘에서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둘째, 허황옥이 가지고 온 것으로 전해지는 파사석탑(婆娑石塔)의 석재는 인도의 내륙지방이 아니라 동부 바닷가에서만 발견된다. 셋째, 따밀어와 우리말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넷째, 북인도와는 달리 남인도의 드라비다문화권은 모계사회였다. 이 점은 허황후가 10명의 아들 중 2명에게 어머니의 성을 부여함으로써 모계사회의 일면을 드러낸 것과 관련된다. 다섯째, 허황옥이 가져온 비단 등은 아요디아 꾸뵘에서 가까운 칸치뿌람(Kanchipuram)에서 생산된 것이다. 여섯째, 수로왕릉의 쌍어문은 북인도의 아요디아가 아니라 드라비다족의 전통문양이다(김정남 2005).

김정남의 견해는 무엇보다도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이 북인도의 아요디아가 아니라 남인도의 어떤 도시 또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을 첸나이 동쪽 바닷가 마을인 아요디아 꾸뵘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가락국기”에서 허황옥은 자신의 출자를 “아유타국”이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첸나이의 아

요디아 꾸뻬은 한 번도 나라(왕국)로 칭해질 만큼 큰 도시였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¹⁰⁾ 적어도 “가락국기” 또는 『삼국유사』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유타국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나라 또는 도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아유타국과 첸나이 해안의 작은 마을을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이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이 곧 오늘날 첸나이의 아요디아 꾸뻬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남의 연구는 허황옥의 출자가 남인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실 허황옥의 출자가 남인도라는 기록도 있다. 『경상도지리지』(1524)에서는 허황옥의 출자를 북인도의 아요디아와는 무관한 남천축국(南天竺國)으로 기술하고 있다.¹¹⁾ 또한 고대 남인도 동해안의 안드라(Andhra)지역을 지배했던 익슈바꾸(Ikshvakus)왕조의 왕들은 선대의 왕들이 사께따(아요디아)를 수도로 하는 꼬살라(Kosala)왕국으로부터 통치했다고 믿었다(*Wikipedia* “Ikshvaku Dynasty”). 익슈바꾸왕조는 안드라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왕조였으며, 2세기 후반부터 크리슈나

10) 남인도 마드라스 대학교(Madras University) 철학과의 미슈라 교수(G. Mishra)에 따르면 인도의 동남부 코로만델 해안(Coromandel Coast)에는 여러 곳에 아요디아 꾸뻬이라는 지명이 있으며, 첸나이의 마리나 해변(Marina Beach) 등대 부근에 있는 아요디아 꾸뻬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꾸뻬(Kuppam)은 ‘어부들의 거류지(a fishermen’s colony)’를 의미하는데, 대개 바닷가 모래밭에 통나무와 야자수 잎으로 엮어서 임시로 만든 거처였지만, 지금은 바닷가에 다수의 빈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형태가 되었다(2017년 2월 26일 김해에서 대담). 이런 점에서 볼 때에도 『삼국유사』의 아유타국을 아요디아 꾸뻬과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11) “妃許氏. 漢光武建武甲辰 浮海而來. 自云南天竺國公主 姓許 名黃玉”(金海郡護附 靈異之跡條. 김태식 1999, 52에서 재인용). 『唐書』에 따르면, 남천축은 “오천축(五天竺)의 하나로서, 바다에 인접해 있고, 사자, 표범, 물소, 코끼리 등이 난다고 하였으니, 아열대 기후의 더운 지방인 현재의 인도 남부 해안지방을 가리키는 말이다”(김태식 1999, 53).

(Krishna)강 유역의 동부 안드라지역을 통치했다. 남인도 익슈바꾸왕조의 왕들이 스스로 꼬살라왕국의 후손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은,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이 반드시 북인도의 아요디야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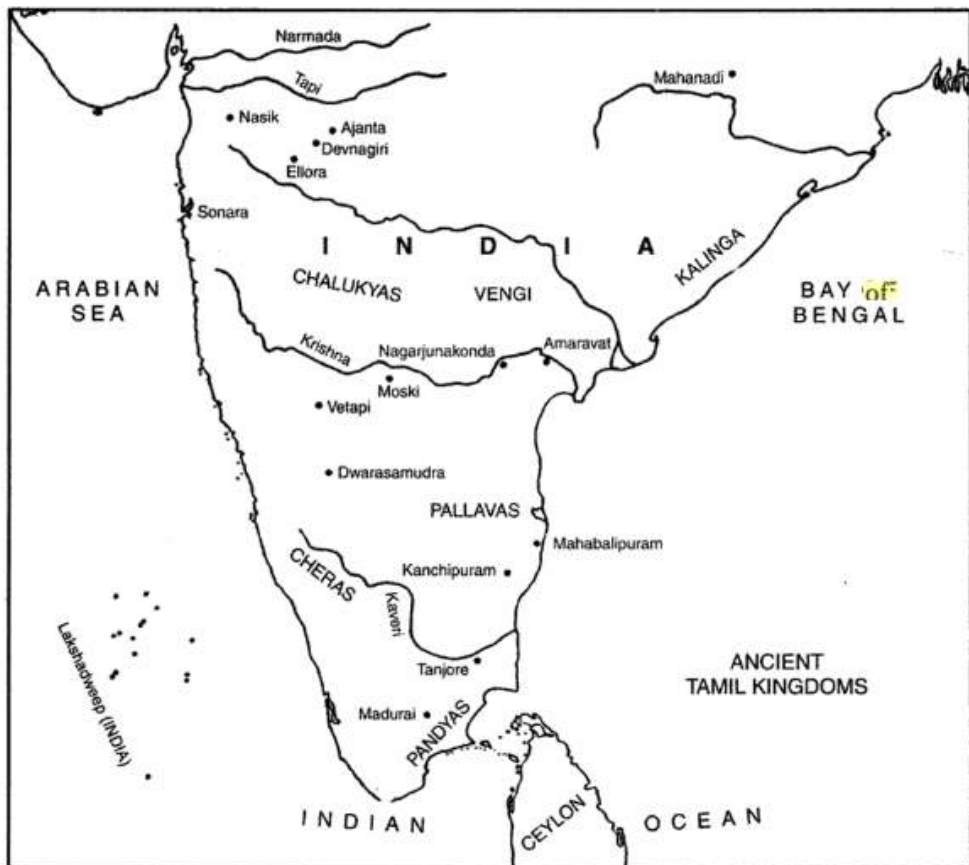
지금까지 허황옥의 출자를 북인도의 아요디야로 본 것은, 단지 아유타가 아요디야의 음역이라는 점, 그리고 수로왕릉의 쌍어문과 현재 아요디야에서 보는 쌍어문이 유사하다는 사실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사 이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허황옥의 출자를 북인도의 아요디야로 단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 못한다. 왜냐하면 ‘유사하다’는 것과 ‘서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단지 두 지역의 쌍어문에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그 둘의 상호 접촉을 단정하는 입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V. 고대 따밀(Tamil)왕국과가락국에서 물고기송배

따밀어와 우리말의 유사성 이외에도 고대 인도와가락국의 문화적 접촉가능성은 이 두 지역의 문화에서 보이는 물고기송배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따밀왕국, 특히 뻘디야왕국과가락국지역에는 물고기송배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으며, 또한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고대 따밀왕국과 우리나라 낙동강 이남의 지명 및 사찰 이름 등에

반영된 물고기승배를 살펴봄으로써, 이 두 지역의 문화적 접촉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로왕릉 쌓어문이 따밀왕국들과 관련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할 것이다.

<그림 1> 고대 따밀왕국



1. 고대 따밀왕국의 물고기승배

고대 인도에서 물고기승배는 아리아(Arya)문화보다는 드라비다(Dravida)문화에서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선 힌두교신화의 어신(魚神) 맛시야(Matsya)와 드라비다문화의 관련성에서 짐작할 수 있다. 힌두교신화에서 맛시야는

일반적으로 비슈누(Viṣṇu)신의 10화신(化身, daśāvatāra) 중에서 첫 번째로 간주된다. 비슈누는 아리야 계통의 삼신(三神) 중 하나이며, 따라서 비슈누의 화신인 맛시야도 아리야 계통의 신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맛시야가 비슈누의 첫 화신으로 열거되는 것은 후대의 일이며(Dalal 2011, 250), 본래 아리야 계통의 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뿌라나(Purāṇa)문헌 이전까지만 해도 맛시야는 비슈누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이거룡 2000, 503). 화신사상은 비슈누신앙이 인도 전역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원래 각기 다른 전통에 속해 있었던 토착적인 신들을 하나의 궁극적 실재(비슈누) 속에 통합하는 메커니즘이었다(이거룡 2000, 505). 예를 들어, 비슈누를 주신(主神)으로 섬기는 아리야전통이 물고기를 숭배하는 전통과 조우했을 때, 물고기는 비슈누의 화신이라는 개념은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물고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비슈누 숭배자로 자연스럽게 포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대개 맛시야가 회화로 표현될 때 얼굴색이 검푸른 색 또는 검은 색으로 묘사되는 점도 본래 맛시야는 아리야 계통의 신이 아니라 토착민의 숭배 대상이었음을 가리키는 방증이 된다.

맛시야와 남인도의 밀접한 관련은 인도신화에서 인류의 조상으로 간주되는 마누(Manu)와 맛시야의 관계에서도 표현된다. 『샤따빠따 브라흐마나(Śatapatha Brāhmaṇa)』에서 맛시야는 마누를 대홍수에서 구하는 거대한 물고기로 묘사된다(viii.1.1-6). 그런데 콜라(Cola)나 뻘디야 등의 남인도 고대 왕국의 왕들은 자신들을 마누의 후손으로 간주한다(Wikipedia “Ayodhya”). 심지어 『맛시야 뿌라나(Matsya-purāṇa)』에서는 마누가 본래 남인도의 왕 사띠야 브라따(Satyavrata)라고 말한다. 즉 남인도의 왕들에게 맛시야는 자신들의 조상 마누 또는 사띠야브라따왕을 구원한 물고기[神]이다.¹²⁾

고대 따밀왕국들 중에서 물고기송배 전통이 가장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왕국은 빠디아왕국이다. 우선 빠디아왕국의 기장이 쌍어(*iṇai kayal*)였다는 사실은 이 왕국에서 물고기송배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남인도의 고도(古都) 마두라이(*Madurai*)는 고대 빠디아왕국의 수도였으며, 이 도시의 중심인 미낙쉬(*Minakshi*)사원은 물고기송배와 깊은 관련을 지닌다. 따밀나두에서 첸나이 다음으로 큰 도시인 마두라이는 이 사원의 건축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였다. 말하자면 마두라이라는 도시가 곧 미낙쉬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낙쉬사원의 주신(主神)은 미낙쉬라는 여신(女神)이다. 본래 미낙쉬는 빠디아왕의 딸이었다고 전해진다. ‘미낙쉬(*Minākṣi*)’라는 범어(*Sanskrit*) 이름은 ‘물고기 눈을 지닌(*fish-eyed*)’ 여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¹³⁾ 힌두교신화에 따르면, 미낙쉬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태어나면서 세 개의 유방을 지녔으며, 여인의 산도(産道)를 통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물고기 모양의 눈을 지니고, 온 몸에서 물고기 비린내가 났다. 당시 어떤 선인(仙人)이 미낙쉬에게 장차 배필을 만나면 여분의 유방 하나와 물고기 비린내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미낙쉬는 강력한 전사로 성장했으며, 주변의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그녀가 마침내 쉬바의 거소인 히말라야에 갔을 때, 쉬바의 한 형태인 순다라(*Sundara*, 美男)를 보았다. 그 순간 미낙쉬에게 있던 여분의 가슴과 물고기 비린내가 사라졌으며, 쉬바와 결혼했다(*Elmore 1915, 85-86*). 이 때문에 미낙쉬는 쉬바의 배우자인 빠르바띠(*Pārvatī*)의 다른 모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미낙쉬사원에서 쉬바가 매우 종속적인 위상을 지니

12) 『비슈누 뿌라나』에서 사띠야브라따왕은 대홍수 이전에 드라비다의 왕이었으며, 인류의 조상인 마누와 동일시된다(*Daniélou 2003, 19*).

13) 미낙쉬는 *mīn* (*fish*)과 *akṣhi* (*eyes*)의 합성어로 이해된다.

는 것으로 볼 때, 미낙쉬여신은 빠디아왕국의 독립적인 여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류경희 2007, 57-58). 힌두교사원에서 여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따밀나두 제2의 도시인 마두라이를 대표하는 사원의 주신이 미낙쉬여신이라는 것은 남인도에서 미낙쉬여신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토착민의 여러 신들이 비슈누의 화신으로 간주되면서 무리 없이 비슈누신앙에 습합된 것처럼, 미낙쉬를 쉬바의 배우자로 묘사하는 신화는 쉬바신앙이 남인도에서 토착민의 종교를 습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Walker 1995, 71).

전통적으로 미낙쉬는 빠디아왕국의 여왕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빠디아왕국의 기장에 쌍어문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미낙쉬라는 이름이 드라비다어 ‘민아뜨시(mīn-ātcī)’에서 범어화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설득력을 지닌다.¹⁴⁾ 드라비다어로 ‘민아뜨시’는 ‘물고기[여신]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물고기는 눈으로 새끼들을 먹여 키운다고 말해진다. 마찬가지로 미낙쉬여신은 눈길로 자신의 백성들과 숭배자들을 보살핀다(*Madurai Info* “Meenakshi Amman Temple”). 따밀지역에는 미낙쉬여신의 눈길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불행이 사라진다는 믿음이 있다.

한편 남인도 빠디아왕국의 기장과 동전에서 보는 쌍어문이 인더스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Mahadevan 2011, 26). 이에 따르면, 인더스문명과 고대 따밀문화 사이에는 원역사적인 관련(proto-historic links)이 있다. 즉 벨리르(Veḷir)나 꼬짜르(Kōcar) 등의 드라비다 종족들은 인더스문명의 후예이며, 인더스강 유역으로부터 남하하여 오늘날의 따

14) 미낙쉬는 순수 따밀어로 앙가야르칸니(Angayarkanni)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 또한 “물고기의 눈을 지닌 여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Madurai Info* “Meenakshi Amman Temple”).

밀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⁵⁾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2> 펀처(puncher)로 찍어서 쌍어를 표현한 빠디아왕국의 은화, 기원전 2세기 경. Krishnamurthy 1997, No. 3. Mahadevan 2011, 26에서 재인용.

<그림 3> 빠디아왕국의 동전에 묘사된 물고기 기장, 기원전 2세기 경. Seetharaman 2004, No. 1. Mahadevan 2011, 26에서 재인용.

<그림 4> 빠디아왕국의 동전에 묘사된 쌍어, 서기 9세기 경. Seetharaman 2006, No. 1. Mahadevan 2011, 26에서 재인용.

2. 낙동강 이남, 고대 가락국지역의

물고기숭배와 드라비다(Dravida)문화

낙동강 이남지역 특히 옛 가락국지역에는 물고기 ‘어(魚)’ 자가 들어간 산이 여럿 있다. 김해의 신어산(神魚山)과 밀양의 만어산(萬魚山), 양산의 어곡산(魚谷山)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해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신어산은 옛 금관가야의 지킴이산이었다. 밀양의 만어산은 허황옥전승과 관련이 있는 만어사(萬魚寺)의 주산(主山)이며, 어곡산은 양산시 어곡동에 있다. 경주의 어래산(魚來山)이나 문경의 어룡산(魚龍山)도 물고기 ‘어’ 자를 지닌 산이다. 산 이름에는

15) 고대 따밀문화와 인더스문명의 관계는 상감(Cañkam)문학에서 입증되며, 초기 역사적 전통에 의하여 지지된다(Mahadevan 2011, 17).

물고기 ‘어’ 자가 없지만, 부산의 지킴이산 금정산(金井山)도 물고기와 관련이 있다. 범어사의 창건유래를 전하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금정산은 금정(金井)에 범천의 물고기(梵魚)가 노닐던 산이다(최완수 1997, 374).

지명(地名)은 비교적 쉽게 변하지 않는 보수적인 언어 정보이다. 특히 제의(祭儀)가 삶의 중심이었던 고대사회일수록 언어는 큰 상징성을 지니며, 이러한 상징성은 나라 이름이나 지명에 반영된다. 말하자면 언어에는 시대의 문화가 투영되어 있으며, 특히 나라 이름이나 지명이 그렇다는 것이다(정호완 1999, 15). 언어의 문화 투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옛 가락국지역에 물고기 ‘어’ 자가 들어간 산 이름이 유독 많은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산이 아니라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산 이름과 결합시키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굳이 산 이름에 물고기 ‘어’ 자를 포함시켰을까? 고래로 산을 신성시하는 우리의 전통과 관련하여 생각해본다면,¹⁶⁾ 산과 물고기의 결합은 곧 물고기숭배의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물고기 ‘어’ 자가 들어간 산 이름에는 물고기숭배의 문화가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옛 가락국지역에서 성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물고기숭배는 가락국 또는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인가? 옛 가락국지역의 물고기숭배가 드라비다문화와 관련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된다. 우선 ‘가락(伽洛)’ 또는 ‘가야(伽倻)’라는 말이 드라비다어로 물고기를 뜻한다는 주장이 그렇다. 언어학자인 강길현에 의하면, ‘가락(karak)’과 ‘가야(kaya)’

16) 허황옥이 가락국에 도착할 때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바치는 장면은 가락국에 산신을 숭배하는 신앙의 형태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창식 2012, 22). 또한 “신라 사람들이 하늘만큼이나 높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신앙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산악이다”(나희라 2016, 138).

라는 말은 고대 인도의 드라비다어에서 물고기(魚)를 뜻한다(김병모 1988, 12).¹⁷⁾ 또한 이 둘 중에서 가락은 고어(古語)이고 가야는 신어(新語)이다(김병모 1988, 13). 이것은 처음에는 가락국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가야로 불리게 된 것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락국은 곧 ‘어국(魚國)’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 지역의 중요한 산 가운데 유독 물고기 ‘어’ 자가 들어간 산이 많다는 사실과 결부시킬 수 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신어산이나 만어산 등을 주산으로 하는 고찰의 창건설화에는 허황옥전승 또는 인도와 관련된 전승이 다수 발견된다.

가락국의 왕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어사는 물고기와 관련된 창건설화를 지니며,¹⁸⁾ 이 절이 위치한 자성산(慈成山)이라는 이름에도 인도문화가 반영된 흔적이 있다. 만어사는 그 밑에 있는 쇧소리가 나는 돌너덜로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돌너덜의 수많은 종석(鐘石)들은 물고기가 변한 것이라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만어사가 있는 산 이름, 즉 자성산이 물고기를 의미하는 범어와 관련된다는 기록이 있다. 만어사가 위치한 자성산은 본래 마야사산인데, 마야사는 범어로 물고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삼국유사』 “어산 불영(魚山佛影)”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7) 한편 무함마드 칸수(정수일)는 ‘가야’라는 말이 붓다의 성도지인 북인도의 ‘보드가야(Bodhgay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이 말[가야]은 이 지방에 있는 순례성지 상두산(象頭山)을 가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불교의 성수(聖獸) 코끼리의異名이 가야라고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칸수 1989, 21). 칸수는 한국불교남래설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가야(가락국)와 보드가야의 관련을 제시했다. 즉 만일 가락국의 가야가 붓다의 성도지인 보드가야의 반영이라면, 가야라는 나라 이름 자체에 이미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며, 이것은 적어도 기원후 1세기에 불교가 인도로부터 직접 가야에 들어왔다는 방증이 된다는 것이다(칸수 1989).

18) 만어사는 가락국의 왕이 창건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삼국유사』 “어산 불영(魚山佛影)”조에는 대정(大定)20년 경자(庚子)년, 즉 고려 명종10년(1180)에 처음으로 만어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일연 2002, 384).

『고기(古記)』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어산(萬魚山)은 옛날의 자성산(慈成山) 또는 아야사산(阿耶聖斯山)[마땅히 마야사(摩耶斯)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물고기를 말한다]이니 부근에 가락국(駕洛國)이 있었다.”¹⁹⁾

『고기』에서 아야사, 즉 마야사는 범어의 한자 음역으로서 물고기(魚)를 뜻한다. 이것은 『삼국유사』 “어산불영”조의 끝 부분에 있는 설명에서 확인된다.

해동(海東) 사람들은 이 산을 이름지어 아나사(阿那斯)라고 했으나, 마땅히 마나사(摩那斯)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번역하면 물고기[魚]이니, 북천축(北天竺)의 일을 가져다가 산 이름을 부른 것이다.²⁰⁾

물고기를 뜻하는 범어 단어로는 *matsa* (m), *matsī* (f), *mātsya* (m), *mīna* (m) 등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mātsya*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삼국유사』의 저자가 아야사가 아니라 마나사라고 교정하고 마나사는 물고기를 뜻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마나사는 범어 ‘맛사(*matsa*)’ 또는 ‘맛시야(*mātsya*)’의 음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matsa* 또는 *mātsya*에서 *t*가 *n*으로 음역된 것은 경상도지역의 방언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경상도지역에서는 지금도 ‘못하다’를 ‘몬하다’로 발음하는 것처럼, ‘맛사’ 또는 ‘맛시야’는 ‘만사’ 또는 ‘만시야’로 음역될 수 있다는 것이다(강헌규 2006, 11 註30).

김해시와 상동면의 경계를 이루는 신어산은 금관가야의 시

19) 『삼국유사』 “어산불영”조. “古記云, 萬魚寺(山)者, 古之慈成山也, 又阿耶斯山[當作摩耶斯, 此云魚也], 傍有呵囉國”(일연 2002, 384).

20) 『삼국유사』 “어산불영”조. “海東人名此山爲阿那斯, 當作摩那斯, 此翻爲魚, 盖取彼北天事而稱之爾”(일연 2002, 385).

조 수로왕과 허황옥 신화가 어린, 김해의 지킴이산이다. 전설에 따르면, 신어산 서쪽자락에 있는 은하사(銀河寺)는 허황옥의 오빠인 장유화상(長遊和尚)이 신어산 서쪽에 불교가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지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 이전까지 있던 건물은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이다. 이 건물의 대웅전 수미단에는 허황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쌍어문이 있다(『두산백과』 “신어산(神魚山)”). 이 쌍어문은 수로왕릉의 쌍어문과 함께 허황옥의 출자가 아유타국이라는 설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했다.²¹⁾ 은하사가 위치한 신어산의 이름도 ‘신성한 물고기’라는 뜻을 지닌다. 또한 은하사의 대웅전 본존불이 관음보살이라는 점은 은하사와 인도의 관계를 추정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관음신앙은 인도로부터 한반도에 직수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²²⁾

은하사 입구의 안내판에는 은하사가 가야 수로왕 때 만들어진 사찰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단지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수로왕 때 장유화상이 가락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은하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기원후 372년(고구려 소수림왕2년)을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원년으로 기록한 『삼국사기』의 기사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함마드 간수 등이 주장하는 한국불교남래설(간수 1989, 13)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기원후 372년 이전일 가능성이 높으며, 장유화상이 신어산 서쪽에 불교가 전래된 것을 기념하여 은하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보다 역사적인 사실에 가까워진다.²³⁾ 장유화상의 불교 전래가 역사적인 사실로 받

21) 수로왕릉의 쌍어문과 마찬가지로 은하사 대웅전의 쌍어문도 그 유래가 불분명하다. 가락국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22) 간수는 낙산의 포타라 관음신앙이 인도로부터 우리나라 남쪽 바다로 들어왔다고 본다(간수 1989, 15).

아들여지면, 은하사는 19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사찰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범어사의 창건설화도 물고기와 관련된다. 범어사의 유래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餘地勝覽)』, 『경상도지리지』 등 조선 초기의 각종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금정산은 현의 북쪽 20리에 있으며, 산마루에 3장(丈) 정도 높이의 돌이 있는데, 위에 우물이 있다. 둘레가 10여자이며, 깊이는 7치쯤 된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 하여 이렇게 그 산을 이름 지었고, 그 산 아래에 절을 짓고 범어사라 불렀다”(최완수 1977, 37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범어사 창건설화에서 핵심은 범천의 물고기이다.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인 접촉가능성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허황옥전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대 인도와 우리나라의 연결고리는 허황옥의 출자로 기록된 아유타국과 수로왕릉의 쌍

23) 김해군 홍보자료에 따르면, 이 절은 본래 서림사(西林寺)라고 불렀는데, “서림사는 현지의 방위상으로 부른 명칭이 아니고 서림사라 한 것은 서역 불교가 전래해온 서방정토를 상징”한다(김용덕 1992, 206).

어문이었다. 허황옥전승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을 사실 그대로의 나라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와 연관시켜서 허황옥의 출자를 현재 북인도의 아요디아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허황옥전승을 단지 신화적인 허구로 보는 입장이다.

김병모의 문화적 전파론은 “가락국기”의 ‘아유타국’과 현재 ‘아요디아’의 일치, 그리고 수로왕릉의 쌍어문과 아요디아 쌍어문의 동일을 전제로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없다. 또한 수로왕릉의 쌍어문뿐만 아니라 현재 아요디아지역 쌍어문의 역사적 배경도 분명하지 않다. 수로왕릉의 쌍어문이 옛 가락국의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아요디아의 쌍어문이 허황옥 시대에도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문헌이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거한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설을 전제로 한 기존의 연구 경향은 재고되어야 한다.

허황옥전승을 단지 신화적 허구로 간주하는 역사학계의 입장도 재고되어야 한다. 역사학자가 입증된 사실에 의거하여 『삼국유사』를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문헌상의 기록이나 고고학적 발굴에만 의거하여 허황옥전승을 신화적인 허구로 결론짓는 것은 옳지 않다. 허황옥전승은 앞으로 문헌 연구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는, 따라서 지금은 ‘형성 도상에 있는 역사적 사실’로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문화교류사적인 견지에서 고찰할 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문화적 전래(transmission)나 변용(變容, metamorphosis)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헌상의 기록이나 고고학적인 발굴의 결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그 사회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종합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대 인도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접촉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고대 인도와 옛 가락국의 문화적 접촉을 논의하면

서 ‘쌍어문’이나 ‘아유타국’처럼 지극히 부분적인 키워드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바늘구멍으로 그 너머를 보려 하는 시도에는 자칫 지나친 상상과 허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고기숭배를 중심으로 고대 따밀왕국들과 옛 가락국의 문화적 접촉가능성을 고찰했다. 종교야말로 고대 인도와 옛 가락국의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문화종합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 접촉을 시사하는 가장 확실한 예는 따밀어(드라비다어)와 한글의 유사성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언어정보로 간주되는 지명에 주목하여, 물고기숭배를 중심으로 고대 따밀왕국들과 옛 가락국의 문화적 접촉을 규명하고자 했다.

옛 가락국권역 또는 낙동강 이남지역에는 물고기 ‘어’자가 들어간 산 이름이나 땅 이름 또는 절 이름이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악신앙과 물고기숭배가 결합된 형태로 보이며, 이 중에서 물고기숭배는 고대 따밀왕국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옛 가락국의 물고기숭배가 따밀왕국들과 연관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사찰의 창건설화에 반영된 전승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 옛 가락국 지역 산(자성산) 이름의 유래를 인도와 관련하여 설명한 예에서도 인도와 옛 가락국의 관련을 짐작할 수 있다.

물고기숭배는 고대 따밀왕국들에 현저한 문화현상이었다. 지금도 남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숭배의 대상은 미낙쉬 여신이며, ‘미낙쉬’라는 이름 자체에 물고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고대 인도의 여러 왕국 중에서 쌍어문을 기장으로 사용한 왕국은 따밀왕국들 중 하나인 빠디아왕국이었으며, 미낙쉬는 빠디아왕국의 여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도 남인도의 옛 따밀왕국지역에서는 물고기숭배 전통이 곳곳에서 발견

된다.

옛 가락국권역은 남해와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밀양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내륙의 수운(水運)과 도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이곳은 바다를 통한 문화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인도 동해안을 끼고 있는 드라비다문화권의 따밀왕국들은 인도의 문화가 해외, 특히 아시아로 전래되는 교두보였다.

참고문헌

- 강길운 1995. 『향가신해독연구』. 서울: 學文社.
- 강길운 2011.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강현규 2006. “『삼국유사』에 보이는 ‘만어사’, ‘오어사’, ‘모의 천’ 주변의 어원考”, 『한국어문교육』 제16집, 5-22.
- 김병모 1988. “고대 한국과 西域관계: 아유타국考 II”, 『한국학논집』 제14집, 5-24.
- 김병모 2011. “가락국의 상징은 쌍어문”, *Chindia Journal* 53, 34-35.
- 김용덕 1992. “가야불교 설화의 연구”, 『한국학논집』 제21, 22合集, 199-225.
- 김정남 2005. “허왕후는 인도 남부에서 왔다”, 『주간경향』 2005/08/16.
- 김태식 1999. “김해 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 제42권, 33-96.
- 간수, 무함마드(정수일) 1989. “韓國佛教南來說 試考”, 『史學志』 제22집, 1-28.
- 나희라 2016. “신라 초기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 『한국고대사연구』 제82집, 131-157.
- 류경희 2007. “인도의 독립적 여신신앙과 여성: 신화와 실제”, 『인도연구』 제12권 2호, 49-84.
- 안재용 2008. “『三國遺事』에 나타난 儀禮의 研究: 冠·婚·喪·祭禮를 中心으로”, 『東洋古典研究』 제33집, 253-278.
- 이거룡 2000. “붓다가 비슈누의 화신(化身)이라는 힌두교의 믿음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제27집, 499-520.
- 이광수 1993. “고대 인도-한국 문화 접촉에 관한 연구:가락국

- 허왕후 설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10집, 257-279.
- 이광수 2003. “가락국 허왕후 渡來 說話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제31집, 179-208.
- 이병도 1964. “首露王陵考”, 『대동문화연구』 제1권, 209-225.
- 이봉일 2014. “신화와 역사의 간극에 대한 한 연구: 김수로왕 신화의 역사적 이해”,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3호, 171-202.
- 이창식 2012. “허황옥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비교민속학』 제49집, 11-33.
- 일연 지음, 김원중 옮김 2002.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 임재해 2010. “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 『비교민속학』 제43집, 467-510.
- 정호완 1999. “신어산(神魚山)의 표상에 대하여”, 『한어문교육』 제7집, 15-42.
- 최완수 1997. 『명찰순례 1』. 서울: 대원사.
- 한지연 2016. “고대 해상루트를 통한 불교전파의 가능성과 의미”,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5집, 177-197.
- 황순일 2017.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와 불교”,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2』 29-43.
- 황정일 2016. “가야불교 전래 지역 아유타에 대한 연구: 한역 경전에 나타난 음역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5집, 151-175.
- Bakker, Hans 1982. “The Rise of Ayodhyā as a Place of Pilgrimage”, *Indo-Iranian Journal* 24(2), 103-126.
- Cunningham, Alexander 1871. *The Ancient Geography of India: The Buddhist Period*. London: Trubner and Co.
- Dalal, Roshen 2011. *Hinduism: An Alphabetical Guide*. Penguin Books India.
- Daniélou, Alain 2003. *A Brief History of India: Inner*

- Traditions*. Bear & Co.
- Elmore, Wilber Theodore 1915. *Dravidian Gods in Modern Hinduism*. Madras: Published by the Author.
- Hulbert, Homer Bezaleel 1905 (Digitized in 2008).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Languages of India*. Methodist Publishing House.
- Krishnamurthy, R. 1997. *Sangam Age Tamil Coins*. Madras.
- Mahadevan, Irvatham 2011. “The Indus Fish Swam in the Great Math: A New Solution to an Old Riddle”, *Bulletin of the Indus Research Centre* No. 2, Roja Muthiah Research Library.
- Seetharaman, A. A. 2004. *Tamiḷaka-t-tolliyal Cāṅṅukal* Vol. III. Thanjavur.
- Seetharaman, A. A. 2006. *Pāṅṅiyar Kācukal*. Thanjavur.
- Walker, Benjamin 1995. *Hindu World* Vol. 2. New Delhi: Indus.

웹사이트

『김해신문』 2015/11/25. “허황옥은 바닷길로 한반도로 들어왔다”. <http://blog.naver.com/p9730043/220550055273>

『두산백과』 “신어산(神魚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4672&cid=40942&categoryId=33160>

『디지털 삼국유사 사전』 “전 수로왕릉”.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content_id=rp070313350001&print=Y

Hindusthan Times 2007/05/04.
<http://www.hindustantimes.com/india/raja-of-ayodhya/story-YJAiaTv6BIcS2gBgNrSvQP.html>

Madurai Info “Meenakshi Amman Temple”.

<http://madurai.jbss.in/meenakshi-amman-koyil-madurai.php>

Mall, Sarin n. d. “Korean Connection with Ayodhya Lord Rama”.

<http://www.mallstuffs.com/Blogs/BlogDetails.aspx?BlogId=259&BlogType=Spiritual&Topic=Korean%20connection%20with%20ayodhya%20and%20lord%20rama>

Wikipedia “Ayodhya”. <https://en.wikipedia.org/wiki/Ayodhya>

Wikipedia “Ikshvaku Dynasty”.

https://en.wikipedia.org/wiki/Ikshvaku_dynasty#CITEREFZimmer1952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Contacts between Garak Kingdom and Ancient South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Fish Worship’*

Lee, Geo-Lyong **

Key Words: Garak Kingdom, Gaya, Tamil Kingdoms,
Heo Hwang-ok, King Suro, Ayodhya, Fish Worship,
Twin Fish Symbol, Pandya Kingdom, Minakshi,
Samgukyusa, “Garakgukgi”, Gimhae

Studies on the possibility of cultural contacts between ancient India and ancient Korea were mostly concentrated on the Heo Hwang-ok tale from *Samgukyusa*

* This work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version of th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y and Future Outlook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India” co-hosted by the Cultural Exchange Center of India, Tongmyong University, and Korean Association for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on November 4, 2016.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aturopathic Healing, Graduate School, Sun Moon University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in these studies, the twin fish symbol found in both Ayodhya (India) and Royal tomb of King Suro of Garak Kingdom (Korea) was regarded as a significant link which showed a definite connection between these two regions in ancient times. Korean scholars' views on Heo Hwang-ok tale are roughly divided into two: the one is to acknowledge 'A-yu-ta' mentioned in the articles on the Garak Kingdom of *Samgukyusa* as the name of a kingdom which was historically existed in ancient India. In line with this view, some scholars insist that the native place of Heo Hwang-ok is the present Ayodhya of North India. The other view is to regard Heo Hwang-ok tale as a fictional story which is not based on historical facts. As a result, the followers of this view consider A-yu-ta in the articles on the Garak Kingdom as a mythical fiction.

In this paper, I explored the possibility of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Garak Kingdom and ancient Tamil kingdoms on the basis of fish worship which had been prevalent in these two areas. I suggest that fish worship was an important cultural foundation for both the ancient Tamil kingdoms of South India and the Garak Kingdom of southern part of Korea.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most convincing evidence of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India and Korea in ancient times is a similarity between Tamil and Korean languages. Therefore, I tried to figure out evidences of cultural interaction based on fish worship,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place name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most conservative linguistic information.

There are several mountain and place names which include the syllable 'Eo' (魚, fish) in the area of ancient Garak Kingdom. It seems that such mountain and place names reflect a combination of the fish worship of ancient Tamil kingdoms and the mountain worship of ancient Garak Kingdom. The influence of the fish worship of ancient Tamil kingdoms can be found in the foundation tales of several Buddhist temples in the area of ancient Garak Kingdom. In addition, the record of *Samgukyusa* on the origin of mountain name related to India is also an another evidence. Fish worship was a conspicuous cultural phenomenon of ancient Tamil kingdoms. Even now, goddess Minakshi is the most powerful figure worshipped in these areas, and the word 'Minakshi' has a meaning of fish. Pandya Kingdom, one of the kingdoms of ancient Tamil, used the twin fish symbol as its flag ornament, and Minakshi is known as the princess of Pandya Kingdom.

The area of ancient Garak Kingdom is not only close to South Sea but also was a major transportation point at which Milyang River and Nakdong River join. We can say that it was an area particularly suitable for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sea route. Ancient Tamil kingdoms existed in the area of Dravidian Culture extending along the Coromandel coast of South India also carried out vigorous cultural exchange with various Asian countries outside India. In short, ancient Tamil kingdoms were bridgeheads conveying Indian culture to overseas, especially Asia.

투고 2017년 3/8일 / 심사완료 4/11일 / 게재확정 5/16일 / 최종수정 5/15일